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지원 무용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8일(일) 14:00~18:00
 - 2024년 12월 24일(화) 9:40~12:40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훈, 김예림, 문영, 성기숙, 정혜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우수 신작의 2차 제작을 지원하여 대표 레퍼토리로 건인하는 취지의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무용분야 심의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우수한 재공연 계획을 선별하고자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정식 시행된 본 사업에는 2021년~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이 신청대상이 되었으며, 무용 분야의 경우 20여 편의 신청대상 가운데 6편이 지원하여 1차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적었던 이유도 있으나 초연의 제작진이 다시 모이기 어려운 무용 생태계 환경, 올해의 신작 사업 신청 등 여러 요인으로 신청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신청하고 지원받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의는 우선 초연 발표 당시 핵심 창작진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무용 분야의 경우 안무자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 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서류 검토 후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건수(3건)의 1.5배수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차 심의에서는 안무자, 기획자 등 주요 제작진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개별채점하여 최종 선정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작품성과 2차 제작의 타당성을 동등한 가중치로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순으로 배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작품성은 예술적 수준과 초연의 객관적 평가를, 2차 제작의 타당성은 기획의도 및 제작 방향(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의 구체성과 참여 인력의 역량, 일정 계획의 적절성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합리성, 유통/확산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차 심의대상 5개 작품 모두 작품성이 우수하고 2차 제작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특히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반영한 수정 계획이 타당하게 짜여 있고, 이미 재공연을 통해 일부 발전시킨 작품도 다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수한 가운데 선정작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의에서는 창작자로서 자신의 예술철학과 고유의 작가성을 지속시켜온 맥락이 2차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작품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 국내외적 확산과 레퍼토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10% 이상 자부담액 책정 의무의 부담으로 작품 규모에 비해 낮은 액수를 신청한 작품도 보였는데, 특별한 기술구현이나 많은 수의 출연자를 계획하는 경우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세 작품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2차 제작" 시즌제 운영에서 예술단체-예술극장 공동기획 형태로 공연될 예정입니다. 심의를 마치며 심사위원회는 초연작품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제작되어 무용 예술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고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